

사상 최대 흥행 목표 국내·외 ‘붐업’ 총력

광주세계수영대회
GWANGJU 2019.
50일 앞으로

〈1〉조직위 준비 순조

경기장 시설 공정률 80%
교통대책 등 손님맞이 준비
각종 이벤트·문화행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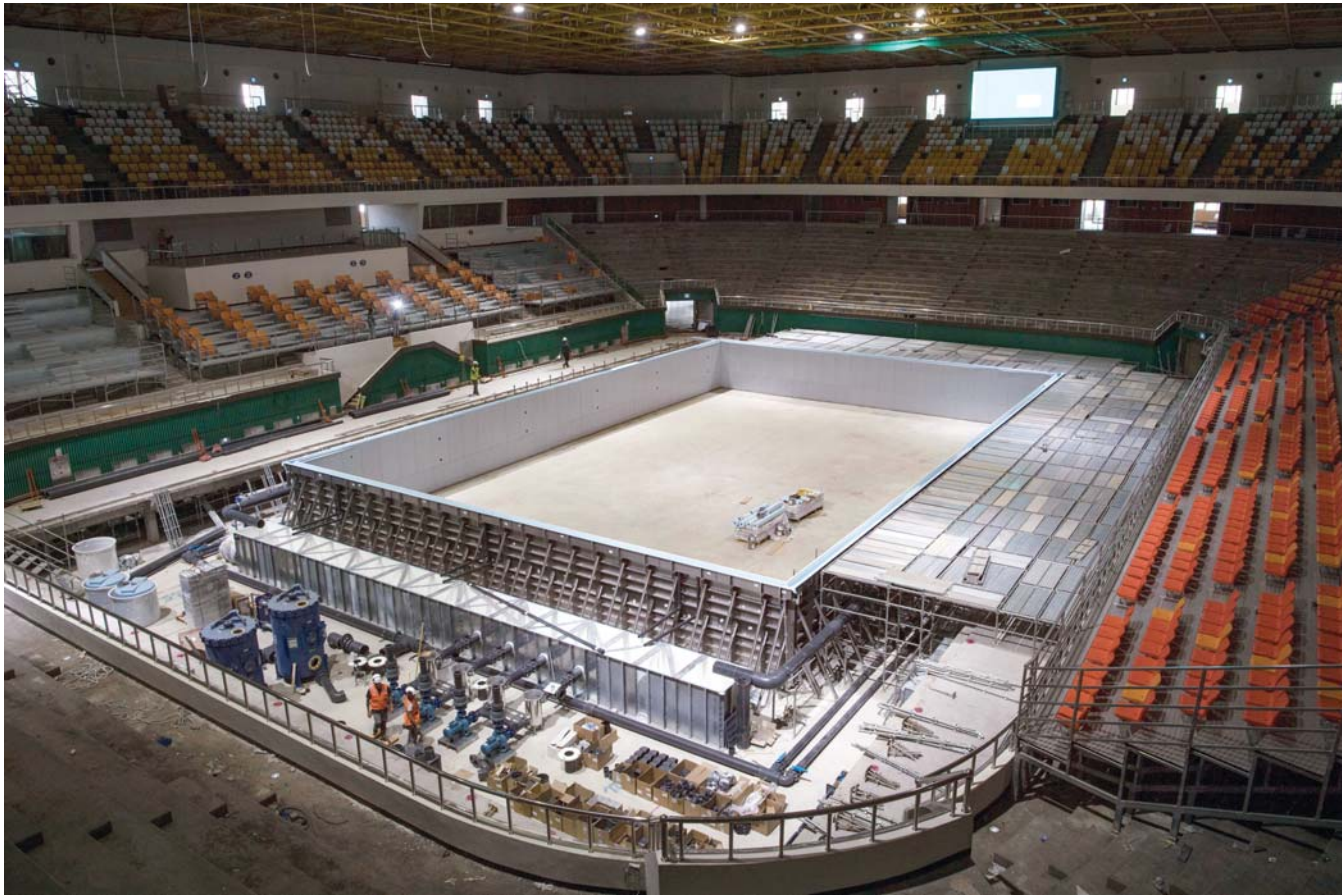
오는 23일로 D-50일을 맞는 '2019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개막을 앞두고 광주 시와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이하 조직위)가 막판 흥행을 위한 총력전에 들어갔다. 경기장·선수촌을 비롯한 대회 시설을 건립하고 교통 대책을 마련하는 등 손님맞이 준비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개막까지 남은 기간 동안 홍보활동 및 이벤트 추진 등을 통해 '붐업'을 꾀한다는 것이다.

20일 조직위에 따르면 수영대회 경기시설 공사는 장거리 수영 종목인 오픈워터 경기장을 제외하고는 전체 공정률이 80% 이상으로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경영·다이빙·수구가 열리는 남부대 시립국제수영장은 공정률 84%, 아티스틱 수영이 열리는 영주종합체육관은 80%, 하이드라이빙이 열리는 조선포해양공원 82%, 오픈워터 수영이 열리는 여수엑스포해양공원 80%로 공정률이 각각 기록되고 있다. 선수, 임원, 보도진 등이 사용할 선수촌 공사는 사실상 마무리됐고, 오는 6월 20일 개관 예정이다. 선수촌은 대회 참가 선수와 임원 4000여명, 미디어 관계자 2000여명 등 모두 6000여명을 수용한다.

선수들의 출입국과 수송 대책도 차질없이 준비 중이다. 인천·김포·무안 공항 등 3개 국제공항을 공식 공항으로 지정·운영하고, 출입국 전용 심사대와 입국 안내 데스크를 운영해 선수와 임원 등 1만5000여명의 대회 참가자들의 출입국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국제공항과 선수촌 간 편리한 수송을 위해 3개 공항에 수송 버스를 편성·운영하고, 인천과 광주 송정역을 오가는 1일 7편의 KTX 임시편 편성 운영을 위해 국토교통부·코레일과 협의 중이다. 이 협의는 오는 25일 국무조정회의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총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기간 중 아티스틱 수영 경기 종목이 열리는 광주 서구 영주체육관 경기시설 개보수 공사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20일 현재 아티스틱 수영 경기장 공정률은 80%에 이르고 있다.

■경기장 개·보수 현황 (5.20 현재)		
경기장(종목)	개·보수 내용	공정률
남부대시립국제수영장 (경영, 다이빙) 기존, 개보수	관람석 증축(3,393→10,648석), 미디어시설 설치 등	84%
영주종합체육관 (아티스틱수영) 기존, 개보수	임시수조 2개, 관람석 4,332석 개보수	80%
남부대종합운동장 (수구) 임시시설	임시수조 2개, 관람석 4,340석 설치	84%
조선포해양구장 (하이드라이빙) 임시시설	27m 다이빙타워, 임시수조 1개, 관람석 3,047석	82%
여수엑스포해양공원 (오픈워터수영) 임시시설	2.5km 코스 부표, 출발대, 관람석 2,095석	30%

영하고, 인천과 광주 송정역을 오가는 1일 7편의 KTX 임시편 편성 운영을 위해 국토교통부·코레일과 협의 중이다. 이 협의는 오는 25일 국무조정회의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전남 학교에 일제 잔재 115건 확인 ▶6면

전라도의 훈 - 한류 원조 왕인 박사 ▶18면

KIA, 원팀정신 빼앗 체질 개선 시급 ▶20면

성백유 조직위 대변인은 이날 "현실적으로는 인천공항에서 버스를 타고 오는 게 편할 수 있지만, 세계수영연맹 임원들과 선수들이 한국의 KTX를 한 번 타고 오는 걸 편해한다"면서 "정부와 협의중인데, 잘 될 것이라고 본다"고 전망했다. 또 김포공항과 광주공항 간 항공 노선도 기존 1일 2편을 활용하고, 필요할 경우 증편을 협의할 계획이다.

광주시와 조직위는 또 5·18 민주화운동 제39주기 주간에 겹치면서 '붐업'이 곤란한 점이 있었지만, 5·18 주간에 끝남에 따라 국내·외 붐업 분위기 조성에 총력전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우선 국내 붐업 분위기 조성을 위해 소셜미디어를 통한 대회 정보·관광 콘텐츠 제작 홍보에 나서고, 박태환·안세현·오정해·성훈에 이어 상정성 있는 홍보대사 추가로 위촉할 계획이다.

1만2500명으로 구성된 시민 서포터즈 발대식을 21일 5·18 민주광장에서 열고, 3000여명의 대회 운영 자원봉사자 발대식도 27일 개최하는 등 D-50일을 앞두고 대회 흥행을 위한 각종 이벤트와 문화행사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입장권 판매에도 막판 총력을 기울인다. 조직위는 개최식과 예선·결선 경기 입장권 37만 매를 판매해 75억원의 수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입장권 발행량의 90%다. 이 가운데 현재 목표 판매량의 20.23%인 7만5000여 매(15억5000만원)를 판매했다.

성백유 조직위 대변인은 "세계수영선수권대회는 수영 종목 단일 대회인 만큼 올림픽·월드컵과 달리 관심이 떨어지지만, 한국은 대회 임박하면 흥행몰이를 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대회 흥행을 위해 개막 전까지 총력을 기울여 붐업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한빛원전 1호기 원자로 무자격자가 제어봉 조작

열출력 제한 초과 후 12시간 가동 ... 34년 만에 첫 사용정지 명령

특사경 투입 수사 착수

지난 10일 밤 발생한 영광 한빛원전 1호기 원자로 수동정지 사건(광주일보 2019년 5월 13일자 7면)의 원인으로 무자격자에 의한 원자로 조작 가능성이 제기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수사에 착수했다. <관련기사 3면>
당시 한빛 1호기는 정기점검을 마치고 정상 가동을 위한 시험 중 제어봉 제어능력에 문제가 생겨 원자로를 세웠는데, 그때 제어봉을 조작했던 직원이 원자로조종사 면허가 없는 무자격자였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이와 함께 한빛 1호기 제어봉에 문제가 생겨 원자로 열출력이 급격하게 치솟아 제한치(5%)를 초과해, 안전을 위해 매뉴얼(운영기술지침서)에 따라 즉각 가동을 멈춰야 했었는데도 장장 12시간이나 가동 중단을 늦추는 등 원자력안전법 위반 사실도 드러났다.

원안위는 20일 한빛 1호기 수동정지 사건 조사 과정에서 안전조치 부족 및 원자력안전법 위반 정황이 확인돼 발전소 사용정지(1호기)를 명령하고, 특별사법경찰관을 투입해 수사에 나섰다 밝혔다.

원안위는 "1986년 가동에 들어간 한빛 원전에서 원자력안전법 위반으로 사용정지 명령이 내려진 것이 이번이 처음"이라고

덧붙였다.

원안위는 한수원이 한빛 1호기 제어봉 제어능력 측정시험 과정에서 원자로 열출력이 제한치(당시 5% 제한)를 크게 웃도는 18%까지 치솟았는데도 원자로를 즉시 정지하지 않은 점을 법 위반으로 봤다. 열출력 급상승을 부른 원안위로는 '핵분열을 조절하는' 제어봉에서 발생한 문제'로 좁혀졌다. 핵분열을 억제하는 제어봉을 의도치 않게 '너무 많이' 인출해 출력이 급상승한 것을 두고 ▲조작(운전 미숙) ▲제어봉 인출범위 계산 착오 ▲정기 점검 부실 ▲한빛 1호기 노후화(1981년 가동) 등이 거론되고 있으나, 원안위 조사로 무자격자에 의한 제어봉 조작 사실이 드러나면서 '인적 실수'에 무게가 실리는 모습이다.

한편, 한빛 1호기 저출력 상태에서의 원자로 수동정지와 관련해 한병식 박사(원자력공학)는 "원자로 특성상 저출력 상태에서 문제가 생기면 제어하기 힘들다"며 "체르노빌 원전 사고가 정지 저출력 시험 조건에서 대규모 원자로 폭발로 이어진 반면, 가동 중 사고가 발생한 TMI(미국 스리마일 원전)의 경우 '핵연료 일부가 녹는' 상대적으로 작은 사고로 이어진 것을 보면 차이를 알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광주, 국립 트라우마 치유센터 유치 성공

광주시가 5·18민주화운동과 고문조작 등 국가 폭력 피해자에 대한 치유활동 공간인 국립 트라우마 치유센터(가칭) 유치가 성공했다.

20일 광주시에 따르면 청와대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국가보훈처, 광주시 등 5개 기관은 최근 국립 트라우마 치유센터 설립을 위한 회의를 열고 매년 국비 14억원을 투입해 현재 광주시가 운영 중인 광주 트라우마치유센터를 국립 트라우마치유센터로 확대·운영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광주 트라우마치유센터는 내년부터 국립 트라우마치유센터로 확대·운영된다.

이번 회의에서 참석기관들은 "트라우마 센터 설립 등에 대한 근거 법률이 없는 등

국가폭력에 대한 국가 차원의 치유활동이 부재하다"면서 "특히 치유 대상자 대부분이 고령이라는 점에서 빠른 치유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국립 트라우마 치유센터 설립 및 운영을 위한 근거 법률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안이 마련될 때까지는 현재 광주시가 운영 중인 광주 트라우마치유센터를 국립 트라우마치유센터로 확대·운영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국립 트라우마 치유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뒤 신규 건립을 위한 부지를 선정해 관계 부처에 제안할 계획이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피부균형을 리셋해 스스로 빛나는 피부로

LIMITED 설화수 윤조에센스

피부노화, 시간이 아닌 피부 속 불균형의 문제
자음단™을 담은 윤조에센스가 흔들리는 피부균형을 리셋해
5가지 젊음의 지표*를 최적의 상태로 끌어올려줍니다.
이제, 젊음의 밸런스로 다시 힘 있게 깨어나는 피부를 만나보세요

*자생력, 생기, 영양, 투명, 탄력

Sulwhasoo
FIRST CARE
ACTIVATING SERUM EX
윤조에센스

• 설화수 플래그십스토어 및 전국 백화점, 이모레 카운셀러를 통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 홈페이지: www.sulwhasoo.com • www.instagram.com/sulwhasoo_official • 플래그십스토어: 02-541-9270 • 고객센터: 080-023-5454 (수신자 요금부담)